용사의 휴일
한 달이나 관계를 맺지 못해
욕구불만 상태인 용사가 카알과
단둘이 휴가를 보내는 이야기

황태자 카알은 최근 용사와 자주 시간을 보냈다
카알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조금 대담하게 굴기도 했다

하아
앗...이런 곳에서...
쥬스...
읍...

할짝
오싱
아...
음...
츄웃

파하
이만 돌아갈 시간이군
그러나 카알은 용사가 달아오를 때쯤이면 금세 작별인사를 고하는 것이었다

만남만 잦아졌을 뿐,
관계를 맺은 것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 결과 -
용사는 욕구불만으로
몸이 달아 괴로울
지경이 되었다
용사는 그 전처럼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는 카알의 심리가
궁금했지만 차마 물을
수는 없었다
쿵
쿵

얼마 뒤 용사를 기대하게 할 만한 일이 생겼다 카알이 용사와 둘만의 휴가를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장소는 호수 위에 난 작은 섬이었는데, 황실의 사람과 초대된 인원만이 입장할 수 있어 최고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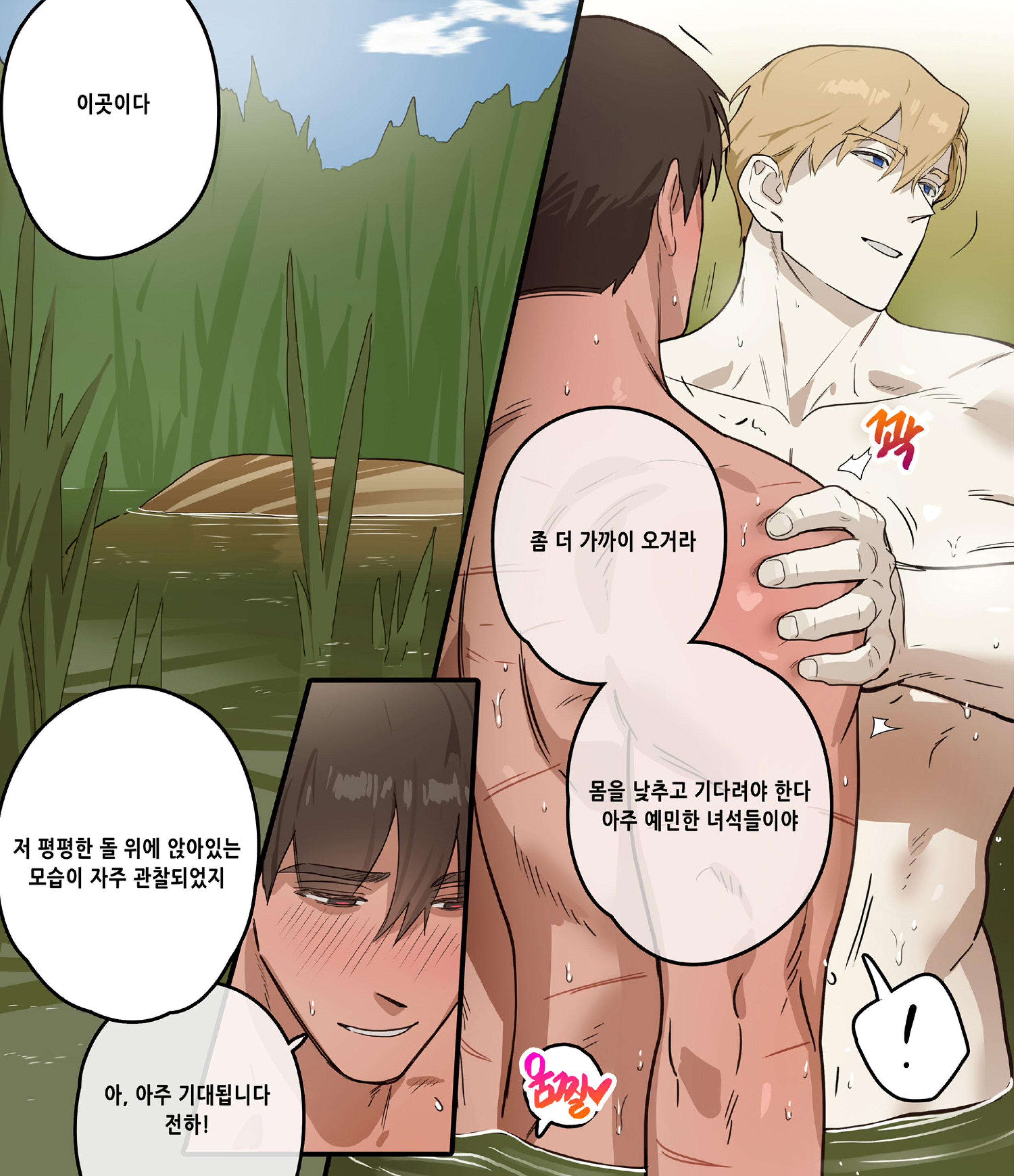
덕분에 두 사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를 따라와라

조용하지만 나름대로
볼거리가 있는 곳이다

나는 근처에 희귀한
철새가 쉬어가는
장소를 알고있지

스윽
용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기대하며 흥분해 버리는 몸을 진정하기가 힘들었다
오싱♥
소, 손이 깊이 맞닿고있어♥
오싱♥
어쩐지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 안쪽이 찌릿찌릿거려...♥
꼬옥♥


이곳이다
꽉
좀 더 가까이 오거라
몸을 낮추고 기다려야 한다
아주 예민한 녀석들이야
저 평평한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지
아, 아주 기대됩니다
전하!
움짤
!

가, 가까워...!

발딱♥

내 음란한 생각을 전하께서
알아채시면 크게
실망하시겠지...

움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발기한 내 물건이 전하의
옥체에 닿을지도 몰라...!

움찔♥

...
큰일이다
무심코 너무 가까이
붙었어...
닿으면 안돼...
닿으면...♥
발딱♥
발딱♥
용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사실 용사의 생각과 달리
카알 역시 몸이 달아
있었다

움찔♥

움찔♥

전하께선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것뿐인데

나는 음란한 생각만 해대고...정말 한심해

내색하지 말자

용사가 먼저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으니까...

저기...

아...!

전하...!
나타났습니다!
활짝♥
전하께서도 몸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깃털이 아름답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예쁜 새는 처음 봅니다!
움찔♥
움찔♥
아아...용사...!

나는 도저히...

꿀꺽

깜짝

!

와아...

꺄악♥
찌릿
저, 전ㅎ...
호오옷!

다, 닿았어!
힘차게 주름이 밀어 올리고 있어♥
옷...!
첨벙
앗...! 저, 전ㅎ...
아핫♥
첨벙
앗♥
단단한 것이 내 구멍에...! 아마도 이건...♥
자꾸만 구멍이 벌어져♥♥♥♥

흐읏,
어, 어째서
문질문질만...♥
앗♥
앗♥
으♥
핫♥
...그치만
이거 기분 좋아♥
슥슥

쿳...!
나온다...!
아
용사의 안에 조금이나마 자신의 일부를 넣으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움찔
뻑
카알은 용사의 항문에 자신의 요도구를 알맞게 맞추었다

웃...

너무 오래 참아서
실수해 버렸어...

하아

그래도... 삽입만큼은
참았으니까...

앗♥

하아...
♥

아...♥

오싹♥

뭔가 조금 몸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

오싹♥

그런데 어째서 전하는
문지르기만...

용사는 마음속으로 그
이상의 것을 애타게
바랐지만 그뿐이었다

그날 밤

네가 쓸 침실이다

나만...?

따로... 자는 건가...?

아 네엣...!

이만 난 가보지

옆 방에 있을 것이니
용건이 있다면
부르거라

아.....
안녕히 주무세요
전하...

...다른 쪽
용건이라면 있지만...

저어...

아...!

아닙니다! 제가
감히...

감히 내 용건 따위로 전하를
귀찮게 할리가...

하지만 절대 말 못 해...!

용사는 끝내 카알의
앞에서 체면을 차렸다

그 결과-

응♥

응구♥

용사는 밤새도록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문질

응핫♥

뻐끔♥

뻐끔♥

문질

그러나 가장 애타는 곳은
채울 수 없는 애처로운
발버둥일 뿐이었다

핫♥

결국 용사는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가 새벽 호수에 몸을 담가 열을 식혔다

후아...♥

움찔 움찔

하...♥

밤새 자위했는데도 부족해...

차가운 물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니 열기가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정신 차리자...!

쏴아아

음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

하아.

저놈 뭐야!

사, 사람...?!
무,
무단침입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는 황실의 사유지다!
저는 황태자 전하의 동행으로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어!
내가 설마 호수 건너편으로 온건가...!
당장 손들고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즉결 처형이다!

...
감히 겁도 없이 전라 상태로 황가의 사유지에 발을 들이다니...
오, 옷은...
건너편에 잠시 벗어둔 것이라...
호오..
덜렁
이런 것을 호수에 담가 황실을 모독할 생각이었나?
몸수색하고 바로 보고하자고

지, 집요해...
웃...
후우...
황실의 사유지라서
더 철저한 걸까
꿈틀
꿈틀
숙여라
콱
...!

여기에 뭔가 위험한 걸 숨기는 녀석들이 종종 있지
웃...!
자아 힘을 빼라
파하-♥
거, 거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봐야 아는 거지
아... .....
화끈

멍청한 놈... 사실 네가 누군지는 알고 있다고

피식

소문대로 무슨 짓을 해도 반항을 안 하는군

잔뜩 가지고 놀아주마

꿈틀꿈틀

으굿...!

시, 싫어...!

아흣...

움찔

쿳...

움찔

여기서 만큼은... 절대로...

전하!
용사는 이른 아침부터 어딜 간 거지?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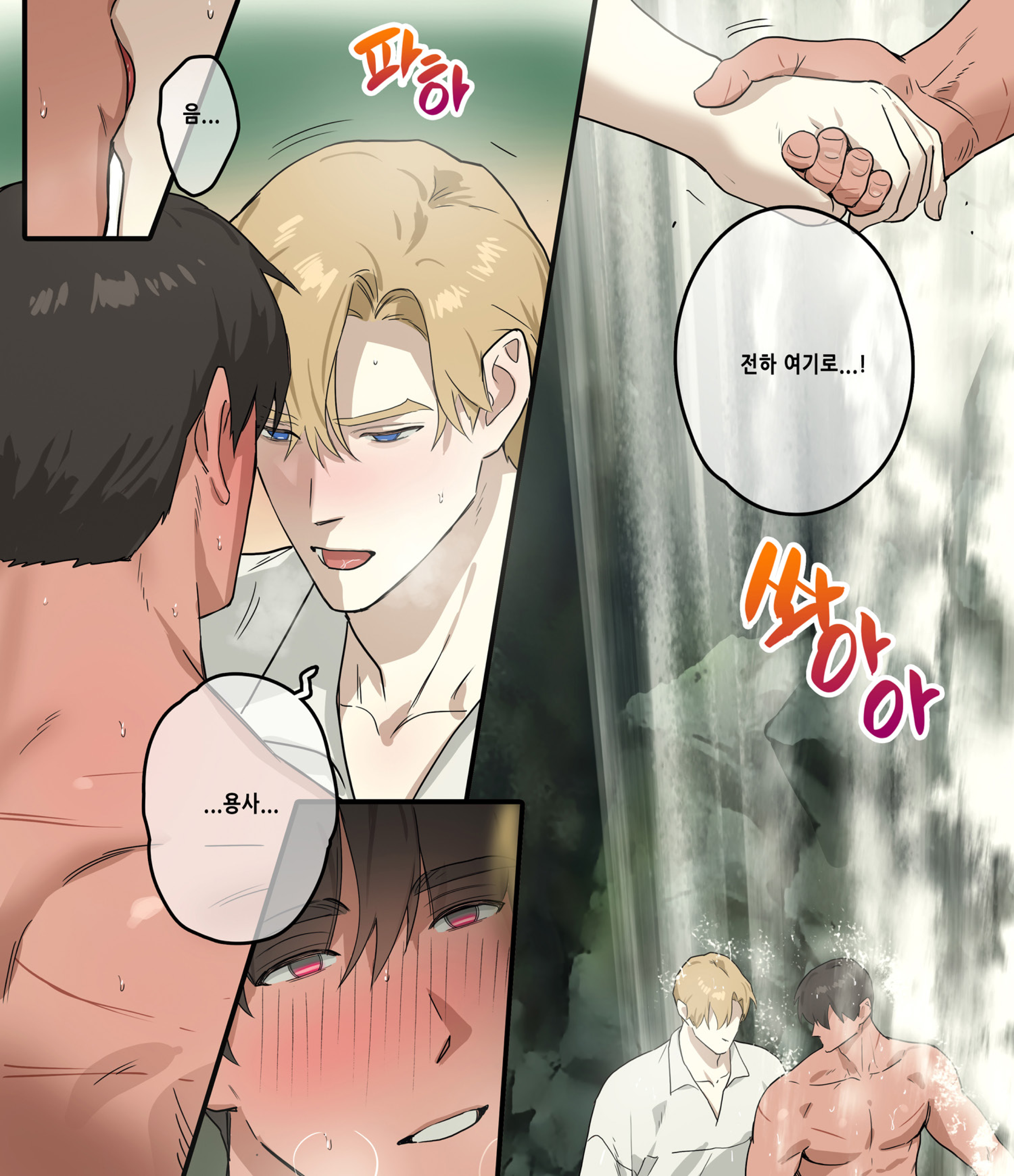
이게 무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츄웃...

꼬옥

츄웃


음...
파하
전하 여기로...!
쏴아아
...용사...

쏴아
전하...
움찔
전하와... 닿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곧...
부디...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꾸욱
...

드디어...
음...
후...
꾹
하아...
꾹

음흣!

스윽

으읏...!

퐁

스윽

으...!

으♥

으♥

으읍!

꿔꾸

드, 드디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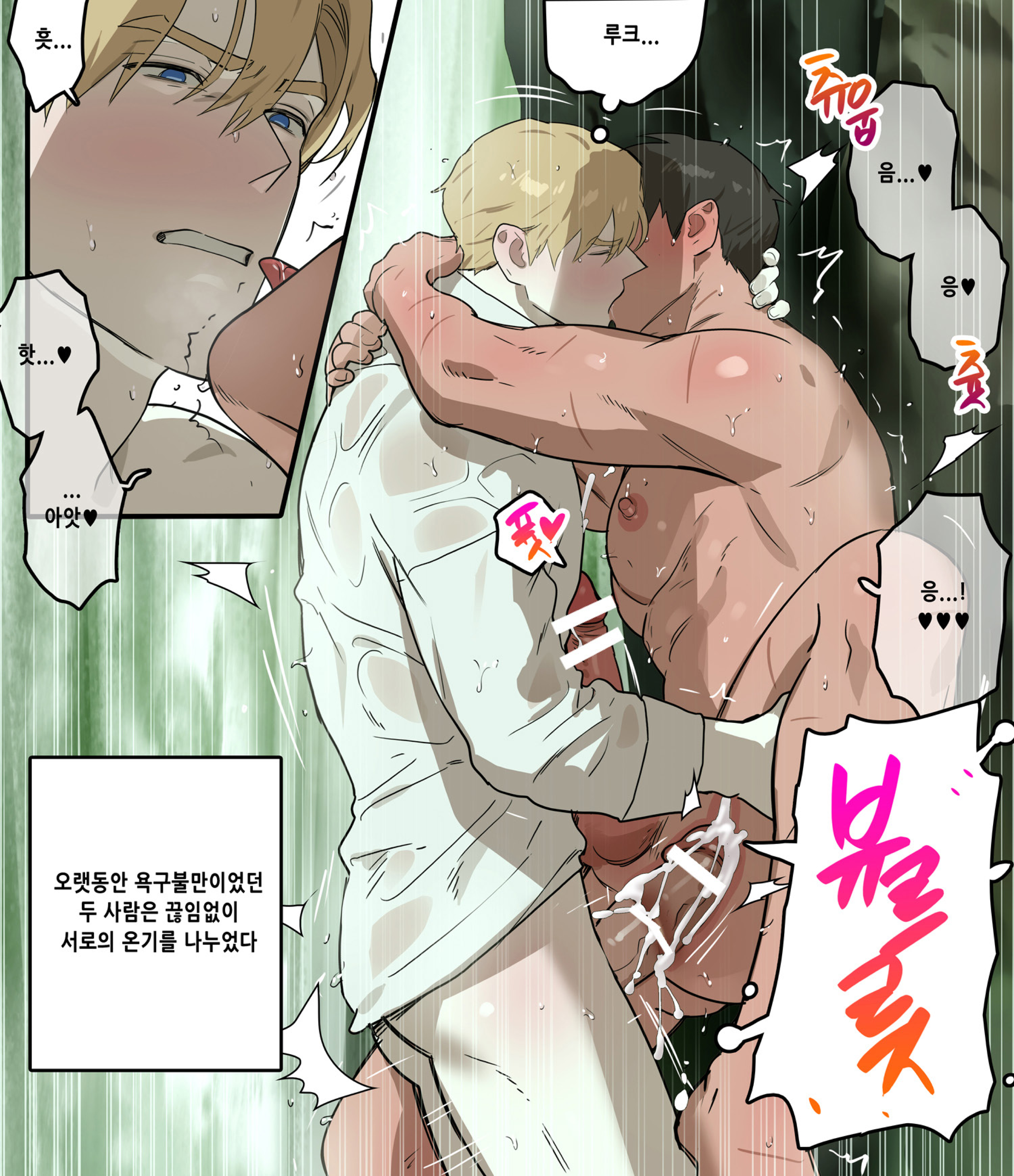
푸♥

[redacted]

[redacted]

[redacted]

격렬해♥♥♥♥
으구웃♥
쯔퐁
쯔퐁
흣...
루크...
오싹!
꼬옥♥
흐굿♥
응♥
쯔퐁
...!
이름...
불려졌어...♥
전부 빠져나갔다가
깊이 들어와♥♥♥♥
아♥


훗...
루크...
쭈읍
음...♥
응♥
찌릿
핫...♥
...
아앗♥
쭛♥
응...!
♥♥♥
불룩
오랫동안 욕구불만이었던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후
남은 휴가 기간 카알과
용사는 매일 질척질척♥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두 병사는 그날 기절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END